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https://blog.naver.com/cw40601/224246463184>

이 글은 엄기호의 책,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1부와 3부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일러둔다.

우선 책을 정리해서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폭력적인 일인지를 아는 까닭에 직접 인용(“”) 표시를 많이 했음을 밝힌다. 직접 인용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은 작가, 그것도 글이 갖는 무게를 잘 아는 작가가 펼쳐놓는 유려한 표현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의 텍스트를 훼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잦은 인용 표시 때문에 내 글이 지저분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논한 이점들 앞에서는 내 글의 미감 따위야 아무래도 좋다. 독자분들께서 이를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텍스트를 훼손하는 것이 매우 불손한 짓임을 앞에도 불구하고, 이 글 또한 텍스트에 대한 폭력임을 고백한다. 좋은 글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그 속에 품고 있기 마련이고, 해석이란 모름지기 텍스트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용기 내어 저자의 글을 오리고, 붙이고, 다른 글들과 연결지으며, 나의 언어로 직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독자분들께서는 나의 글을 책 자체로 여기시지 않기를, 책에 대한 나의 해석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글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일 것이다.

이 글은 꽤 길다. 따라서 pdf 전문을 첨부한다. pdf를 열자마자 분량에 압도되어 다시 닫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기준 16페이지다. 180% 간격에 11포인트로 작성해서 더 길어진 것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도 길다. 왜 이리 길어졌을까. 저자의 탁월한 통찰에 감탄하고, 그가 드러내는 진실에 절망하고, 그럼에도 꺾이는 따스함에 내가 미소지었듯이 여러분도 그랬으면 해서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다. 고통으로 절규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곁을 지켜줘야 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다. 나의 글을 통해 그의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 글은 성공적이라 할 것이다.

1. 말(언어)과 소리
2.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
3. 고통에 대한 응진, 주문
4. 고통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 고통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6.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동행하는 법, 글쓰기
7. 고통의 곁에도 필요한 곁
8. '지금 당장'에서 '지금 여기'로 나아가게 하는 바깥
9. 고통苦痛에서 고통孤通으로

1. 말(언어)과 소리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나오는 질문이 있다. '너는 힘든 일을 주변에 이야기하는 편이야?' 이에 대한 답은 각각 다르다. '힘든 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치유 받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듯이, 슬픔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데 말을 굳이 왜 해.' 고통을 공유하는 행위는 연대인가 전연인가.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들여보려면 다소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로 말(언어)과 소리다.

저자는 언어와 소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먼저 “언어는 세계를 짓는 도구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응답하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 말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나와 그가 머무른다. 이것을 공동의 집, 세계라고 한다. 언어는 바로 이 공동의 집인 세계를 짓는 도구다. 이렇게 말로 세계를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이다. 모든 말은 응답이다. 누군가의 표정이나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말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이 시작되면 들은 사람은 그 말에 응답한다. 모든 말은 응답을 기대하며 응답하기에 말이 된다.”(13)

반대로 응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응답되지 않는 말들이 있다. 서울역을 떠올려보라. 호객행위를 하는 이, 돌계단에 쭈구려 앉아 동냥하는 이, 술주정을 하는 이들의 언어가 우리의 귀를 잠깐 훑고는 이내 허공으로 증발한다. 이것들은 ‘소리’다. 소리는 타인에게 전달되는 의미를 품고 있지 않은 탓에 단지 외침이고 신호일 뿐이다.

2.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

고통은 말인가 소리인가?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고통은 한숨이자 신음이요 울부짖음이고 절규다. 즉, 고통은 소리다. 고통을 말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던 재희 어머니는 이를 정당화하고자 자신의 고통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혹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하면 그 고통이 “너무 별것 아닌 게 되어”(57)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에 대한 묘사, 설명, 분석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고통의 가치와 의미다.”¹⁾(54) 고통을 아이를 낳는 산고로 비유하는 것에 반대하며 저자는 고통을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을 일군 사람들, 다시 말해 고통에서 의미를 길어낸 사람들을 자주 본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고통의 의미는 고통받는 자의 내적 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지 고통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내면과 세계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의미가 있어야 말이 되고, 말이 있어야 내면과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말하려 든다면 고통의 곁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곁이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친구로서 상대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104)인데, 고통받는 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곁을 지키는 이들이 대답response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통받는 자측에서의 일방적인 전달만 있을 뿐 다시 돌려줄re-말이, 응답할 말이 없다. 고통은 소리인 탓이다. 이 호소가 반복될 때 곁이라는 집은 파괴된다.

3. 고통에 대한 응전, 주문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통을 말할 수도 없다면 고통받는 자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가? 책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응전이 그려진다. 하나는 마음공부 및 수양이다. 가정에서의 경제적·관계적 문제로 고통받던 선아는 상담 단체와 불교식 수양 단체에서 공부와 수양을 배워 자신의 삶을 많이 안정시켰다. 그녀는 ‘마음’과 ‘분리’라는 용어를 활용해 자기에 대한 얹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이 같

1) 말이 ‘말’이라면 의미를 품고 있어야 하기에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되는 것이다.

은 봉합법은 중국에는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 공부와 수양은 자기에 대한 앎에 이르는 길인 데 반해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종교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을 견딜 수가 없었던 덕룡 아버지는 동생을 따라 신흥종교의 '회관'에 가면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큰 힘이 된 것은 주문이다. 주문은 책의 주요어이므로 이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하겠다.

“주문은 일종의 ‘텅 빈 기표’로서 말을 하는 것이긴 하되 그 말에 특정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고 그 말을 소리 내어 했다는 점이다. 그 ‘소리’에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이 담긴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주문에는 다 들어 있어”라고. 주문은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말, 곧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여전히 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67) 신, 그리고 주문과 방언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²⁾ 이 존재들 덕분에 주문은 세계를 바꾸고 구원하는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언어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주문은 덕룡 아버지를 고립시킨다. 주문에 대해 말할수록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그에게 곁이 되는 주변은 같은 종교인들뿐이었다. 이 주문에는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

2) 저자는 67쪽에서 주문과 방언이라는 소리를 말로 듣는 것은 오로지 신밖에 없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는 존재로 주문과 방언을 공유하는 ‘공동체’도 있다고 말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주문과 방언의 소리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말을 알아듣는 존재는 신만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주문과 방언을 말로 듣는 것은 오로지 신밖에 없다. 그러나 신은 직접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므로 종교인들의 주문은 신에게 전달되는 말이라고 믿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때, 공동체는 주문이 단순한 소리가 아닌 신에게 전해지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해, 종교 공동체는 주문을 말로 알아듣는다. 비록 신처럼 주문에 담긴 말뜻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주문과 방언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주문과 방언을 알아듣는다는 의미이다.

라 주문은 구체성을 삭제시킨다. 고통이 우주적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그 속에서 개별성, 고통의 실존적 차원은 상실된다.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친구들이 그를 책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즉 고난으로 위치 지음으로써 고통이 갖는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이 파괴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마지막은 사회(구조)적 대응이다. 태석은 대안 학교에서 참된 교사로 일하기를 기대하다 무기력한 학생들을 마주하며 자신마저 무기력해진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공부하며 그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사회과학적 언어는 그가 품은 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 모임에 나갈 때마다 신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외치며 냉소적으로 구는 태석을 보며 주변 교사들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의 곁을 만들어줄 교사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고통을 오로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은 고통의 실존적 측면을 무시하게 만든다. 설령 고통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실존은 늘 사회의 잔여 범주로서 존재에 달라붙어”있다.(84) 그 때문에 태석은 “수다 모임에 나가도, 사회학 공부와 토론 모임에 나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다.”(94)

선아, 덕룡 아버지, 태석은 고통을 명료하게 말하기 위해 각각 내면적 언어, 종교적 언어, 사회적 언어라는 ‘한 방’의 언어를 동원한다.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과 ‘분리’를, ‘주문’을, ‘신자유주의’를 소환한다. 서로 달라 보이던 세 종류의 응전은 모두 고통 앞에서 특정 용어를 외며 그것에 기대는 모습이었고, 이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주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종합된다. 그러나 주문은 고통이 지닌 세 가지 측면인 사회적 측면, 관계의 측면 그리고 실존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 선아의 대응(고통의 심리학화)은 사회적이고 관계적 측면을, 덕룡 아버

지와 태석의 대응(고통의 종교화와 사회과학화)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실존적 영역을 앙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았던가.

더 큰 문제는 주문이 “고통의 다른 차원을 대면하고 고통을 말한다 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직면하는 것을 방해”(98)한다는 점이다. 앞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주문이 소리처럼 보이는 말임을 봤다.³⁾ 그러나 주문 이라는 하나의 언어가 고통의 다른 차원까지 봉합하여 자신이 겪는 고통을 완전히 해명하려 들 때에 주문은 (그것이 좁은 의미건 넓은 의미 건 간에)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때, 주문은 ‘소리’임에도 ‘말’인 척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한다. 소리를 질렀음에도 마치 말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이렇게 울부짖음으로서의 주문은 “울부짖음을 격 하하고 억압한다. 게다가 주문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한 것처럼 위 장시킨다. 그 결과 고통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대면하지 못한다.”(112-113)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저자는 주문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주문을 통해 고통에 대응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할 때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고통 의 사회성과 역사성, 그리고 실존적 가치를 무화시키는 허무주의적 자 해”다.(111) 다만 이 주문이 실체가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주문은 방편으로 쓰여야 한다. 주문이 물신物神이 되면 고통은 잠시 잊히겠지만 고통을 겪는 자는 주문의 노예가 되고 곁을 파국으로 몰아간다.

3)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자가 좁은 의미의 주문을 소리로 보는지 말로 보는지가 내게 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주문이 여전히 ‘말’이라고 하면서도 “말로 만들 수 없는 ‘공동 의 집’을 다시 짓는 말”(67)인 ‘소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가 방편으로서의 주문을 말로, 실체로서의 주문을 소리로 본다고 생각하여 주문을 소리라 하면서도 말이 라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질긴 검토 끝에 내려진 결론은 아니다. 저자의 주문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논쟁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시간상 문제로 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주문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본 각주 바로 다음의 문장이므로 독자분들도 일단 여기에 주목했으면 한다.

4. 고통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행히 우리는 묵언 수행하는 수도승이 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인 고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대도 ‘겪고’ 있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과정, 말할 수 없는 것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 대한 것 말이다.”(114)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과 싸울 수 있게 된다.

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성이다. 아무리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 거라고 해도, 이 말은 고통받는 자에게 유효하지 않다. “내 손톱 밑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다른 사람의 죽을병보다 더 힘들다. 고통은 거의 대부분 비교 불가능하다.”(115) 이 때문에 고통은 다른 이와 의 소통을 막는다. 아무리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를 만난대도 이야기를 나눌수록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통은 개별적인 것이라는 ‘실존성’에 이르고 깊은 외로움”(116)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바깥’을 발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뜻밖의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깥을 발견한 자는 자신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픈 사람들은 모두 외로워하고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고통의 절대성이 갖는 보편성이다. 고통 자체는 절대적이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사실이 ‘공통의 것’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고통苦痛은 고통孤通이 된다.”(126)

5. 고통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고통苦痛이 고통孤通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논해야 한다. 외로움(孤)이 통(通)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고통을 겪는 당사자의 '위치'에서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 고통을 겪게 될 때 주체,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좋다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고통을 겪는 이가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이다. 앤드류 솔로몬 Andrew Solomon의 『한낮의 우울』에서는 이 사실을 넝쿨식물에 잠식당한 고목의 비유로 탁월하게 묘사한다. “나무 자체는 이미 자신을 휘감고 있는 넝쿨식물에 의해 고사, 죽어버렸다. 그런데 넝쿨식물이 나무의 형체를 대신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120) 고통받는 자도 마찬가지다. 고통과 우울에 의해 함몰된 존재는 자신을 함몰시킨 것에 의해 형체만 유지되는 “텅 빈 존재 x”(121)가 된다. 다른 말로는 자기에게 함몰된 상태이다. “자기에게 함몰된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법을 잇는다는 말이다.” 이 상태에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을 건네는 법을 잇는다.

그렇다면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저자는 재희 어머니 곁에 있는 재희의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발견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재희 어머니는 고통의 곁에 있는 재희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하기를 무한 반복한다. (물론 이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다.) 결국 고통의 곁을 지키던 재희마저도 고통의 당사자가 되었다. 재희 역시 그녀의 어머니처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에 관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희가 재희 어머니에 대해 그랬듯이 주위 사람들도 재희에 대해 할 말을 잃어가게 됐다. 재희의 말이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늘 소리인 것은 아니었다. “재희가 어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다른 이의 경험을

듣고 싶었다.”(231)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했으나 서로 간에 유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 이야기들은 나누고 보태는 것이 있었기에 단지 유용한 것을 넘어서 재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였다.”(232)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결’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고통을 겪는 이가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233) 고통을 겪는 이는 자신의 고통에 관해 ‘아무나’에게 호소를 한다.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응답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 “고통의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이야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말에는 빠져 있다.”(233)

그렇다면 고통의 당사자는 고통을 말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당사자의 ‘위치’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위치에서 나와야 한다.”(234)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에 관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해, 고통의 당사자가 자신의 곁에 서야 한다.

6.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동행하는 법, 글쓰기

고통의 당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글을 통해서다. “글을 읽고 씬을 통해 사람은 고통받는 타인의 곁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다.”(234)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남도 아닌 자기가 자기의 곁에 설 수 있다는 건가?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에 따르면 인간의 조건은 ‘복수성 plurality’이다. 인간은 홀로 충만한 자족적 존재인 신, 먹고살기 위해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다른 존재인 “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236) 마치 거울⁴⁾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 복수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을 통한 앎과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허하다. 남과 헤어지고 홀로 있는 순간, 그들로부터 온 인정과 앎 역시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홀로 남았을 때에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 “남을 넘어선 남”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존재로부터도 인간⁵⁾은 자기에 대한 앎에 도달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복수성’의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납득”⁶⁾하지 못할 때 가장 답답하게 되는 일은 이 때문에 비롯된다.

‘자기의 복수성’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곁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복수성을 구축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글쓰기다.⁶⁾ 글쓰기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의 곁에 서서 자기를 보고,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이 대화를 하며 내면세계를 지을 수 있다.

이는 고통의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고통이다. 극심한 고통의 격랑에 시달렸던 에라스무스와 파스칼은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이야

4) “신은 이미 스스로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앎에 도달한 자에게 거울이 필요없다. 동물은 자기에 대한 앎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거울이 필요하다. 오로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인간에게만 남이라고 하는 거울이 필요하다.”(235-236)

5) 인간의 한자어가 人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단수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무엇과 함께 그 사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심지어 홀로 있을 때에도 말이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에게 함몰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것과 다름없고, 이에 관한 비유 - 넝쿨식물에 의해 고사된 나무 - 는 다시금 적실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6) 그러므로 저자는 글쓰기를 “그저 자기 표현과 성찰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글쓰기가 가진 의미를 형편없이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38)

기하는 글을 썼다.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해명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앞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고통이 지닌 유일한 가치라면 가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통으로 인한 ‘글쓰기’가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을 겪는 자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에게 함몰된 고통의 당사자 위치에서 벗어나 내면에 ‘자기의 복수성’을 갖출 수 있다. 말라 죽었던 인간이 자신과 공동의 집, 세계를 짓고 자신과 함께(人) 그 사이(間) 안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동행할 수 있다.

7. 고통의 곁에도 필요한 곁

재희의 사례로 잠깐 돌아가자. 5장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투병 중인 재희 어머니가 자기에게 함몰되었고, 고통은 동행을 모르기에 결인 재희마저도 고통에 빠지게 되었음을 봤었다. 그러나 고통의 곁이 겪는 고통은 고통을 겪는 이의 고통과는 다르다. “고통의 곁에서 고통받는 이는 고통의 당사자와 달리 여전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242) 하지만 이것이 고통의 곁이 고통의 당사자보다 편한 상태라고, 고통의 곁에는 곁이 필요 없다고 말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곁을 고통 곁에 홀로 내버려 두면 곁은 고통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듣는 ‘신’이나 ‘식물’이 되지, ‘인간’이 되지 못한다.

다행히 재희 곁에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재희 어머니 곁에 재희가 있었듯이 말이다. 하지만 구별되는 점이 있다. 재희 어머니와 재희 사이에는 소리만 존재했던 반면, 재희와 재희의 형제자매 사이에는 말이 오갔다. 그들은 보통 어머니의 동향, 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곧 “서로 사는 이야기, 특히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244) 그 과정에서 재희는 다른 투병인과 그 곁

의 이야기, 즉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어머니는 양반이더군요”라면서 말이다. 또한, 재희의 곁에는 친구들도 있었다. 한 친구는 재희에게 아무도 이야기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늘 불평하던 자기 어머니가 급기야 방에 들어온 사마귀를 놓아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란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저자는 “재희에게 영화 <공동정범>에 나온, 달팽이와 이야기 나누는 사람의 에피소드를 말해주자 바로 딱 그렇다고 신기해하며 재미있어했다. 재희는 형제자매나 친구나 저자와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246)라고 불렀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고통과 고통의 곁의 차이이다. 고통은 이야기를 모른다. “고통의 이야기는 각각 고통의 순간들에 대한 푸념과 한탄, 원망과 분노로 끊어져 있다. (...) 반면 고통의 곁에는 말하고 듣는 힘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고통의 곁과 그 곁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만들어진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말이 보태지고, 그 말에 또 곁에 선 이의 응답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 아무리 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 자체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고통의 곁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이며 이야기가 주는 재미다.”(247)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자리도 바로 이 자리, 고통의 곁과 그 곁의 곁 사이이다. “고통의 곁에 선 이의 옆에 다른 곁이 있을 때, 그는 고통의 곁을 견디며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곁의 곁’이 없이 ‘곁’만 강조하면 그 곁은 붕괴하게 된다.”(249)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세 명의 생물학적 인간 - 고통을 겪는 사람, 고통의 곁에 선 사람, 고통의 곁의 곁에 선 사람 - 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것은 고통을 겪는 이가 자기 고통의 곁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때 고통의 곁에 선 이의 위치는 고통의 곁의 곁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통의 옆에 선 이는 고통을 겪는 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고

통의 곁을 지키는 이에게 곁이 있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이는 이 기약 없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249)

8. ‘지금 당장’에서 ‘지금 여기’로 나아가게 하는 바깥

고통에 관한 이야기는 고통의 곁과 그 곁의 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고통苦痛을 고통孤通으로 바꿔주는 않는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다른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바깥’이다.

3장에서 가족과의 문제로 고통받던 선아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선아는 불교식 마음수양과 상담, ‘마음’과 ‘분리’의 주문으로 고통을 다뤘다. 그러나 몇 가지를 계기로 그것들을 그만두게 되었다. 저자가 주목한 계기는 그녀가 수양과 상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직접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이다. 처음에 선아는 자신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른 생각’이라고 여겼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가치 판단’임을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었다. “자기 생각이 판단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자책, 혹은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기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을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심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253-254)다.

이제 선아는 들판을 사람들과 걷는다.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 어느 날 선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걷다가 강에 오리 떼가 헤엄을 치며 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 선아는 무심결에 “어머, 저 오리는 혼자 떨어져 있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저마다 달랐다. 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저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활발히 살다 나이 들어 집에 혼자

계시는 선아 어머니는 “불쌍하다. 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혼자 왕따가 되었을까?”, 결혼해서 잘 살면서 늘 혼자 여행도 잘 다니는 친구는 “뭐가 문제야. 저렇게 혼자 자유롭게 다니면 되지”라고 말했다. 선아는 이것이 정말 신기했다고 한다. “오리 한 마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과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 말이다.”(251)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리’에 대해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와 같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 너는 그렇니? 나는 이런데.”라고 말할 뿐이다.

선아의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낸다.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게 되면 우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말 걸기의 도구가 된다. ‘오리’처럼 가치관을 매개하는 도구들이 연이어 주어진다. 반면, 앞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 걸기의 도구 없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듣는 이가 “상당한 윤리적 부담”(251)을 느낀다. 맞장구를 치거나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흘러들을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을 다른 데 빚대어 말하기도”(251) 어려우니 가치관과 판단이 직접 부딪힌다. 또한, 앞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과 자기 생각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상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자기 생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된다. “상대 이야기를 들으며 굳이 내 판단을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한참을 길게 들을 수 있다. 앞서서 이야기할 때처럼 바로 반박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스러운 말은 흘러들으며 다른 것을 봐도 무방하다.”(235)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 단순히 동의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대가 다그칠 경우도 별로 없다. 걷기에서는 말 걸기의 도구가 생각과 생각, 말하기와 말하기를 매개하며 완충한

다. ‘지금 당장’을 요구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의 걷기가 둘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당장’에서 해방시켜준다.”(256)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세계’ 때문이다. “앞아서 이야기할 때 만들어지는 세계는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이 사이의 바깥은 무시된다.” “반면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 걸으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바깥이라는 세계 ‘안’에 말을 나누는 이들의 ‘사이’가 들어가 있다.” “바깥이 존재하며 머무르되 벗어날 수 있음, 이것이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다.”(256)

고통에 관한 이야기는 바깥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즉각 반응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고통이 실시간인 만큼이나 말이다. 이런 점은 고통에 처한 사람이 잘 견디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지금 당장 고통을 말해야 하고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지금 당장 상대가 반응해주기를 바라는 까닭에, “걷기가 만들어내는 ‘여유로움’과 ‘매개’를 답답해한다.”(258)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가 “고통을 하소연하는 이를 견제 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의 고통은 사람을 ‘지금 당장’에 묶어놓고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258)

“일단 걷고 나면 사정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것은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아니다. 걷기가 주는 것과 같은 매개와 완충, 머무름과 벗어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다.”(258)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담겨 있는 바깥 세계가 있을 때, 그 관계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 꼭 걷기일 필요가 없다. 같이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잠시일지라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옴으로써 고통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통 이외의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순간 그는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시간에서 해방되므로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다. 『죄와 벌』에서 고통받는 라스콜 니코프에게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새로운 공기”라는 말로 바깥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라스콜니코프가 바깥에서 “새로운 공기”를 쉰면서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9. 고통苦痛에서 고통孤通으로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때 또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선아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각자의 고통의 종류, 강도, 대처법은 다르지만 고통을 겪는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고통, '외로움'임을 깨닫는다. 고통은 외로움이 인간의 보편적 존재 양식임을 알게 하고, 고통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 외로움은 고통의 절대성에 매몰되게 만들어 자기의 고통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매개와 완충을 거친 걷기의 이야기는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너의 고통도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261)

선아가 들판을 걸으며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고통 자체에 대해선 “말을 하려고 할수록 혀가 꼬였고 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261)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되면서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외로운 존재임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반가웠다. 자신만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어 반가웠다. “원인도 정체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각자가 어떻게 겪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외로운 존재로 고군분투하는지”(262)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반기고 보태며 나눌 수 있는, 고통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아의 고통苦痛은 고통孤通이 되었다. 고통에 의해 자기에게 함몰되어 주문에 의지하던 선아였다. 그런 그녀가 주문을 걷어챘다. 마음 수양에서부터 걷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시도한 끝에 그녀는 스스로 고통의 곁에 섰다. 앞으로 뚝길을 걸으며 선아와 동행할 이들은 선아의 고통의 곁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고통과 동행하는 선아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의 곁이 그 곁의 곁과 바깥을 거닐 때 새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에 나누어질 것이다. 고통은 세상을 고통 안으로 끌어들이지만, 고통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을 고통 밖으로 인도한다.